

송하진 전 전북지사, '서예 초대전' 연다

서울 한국미술관·전주현대미술관서 '거침없이 쓴다, 푸른돌·취석(翠石) 송하진 초대전' 개최

행정가의 길을 걸어왔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가 서예가로 돌아온다.

한국미술관과 전주현대미술관은 오는 25일부터 서울과 전주에서 '거침없이 쓴다, 푸른돌·취석(翠石) 송하진 초대전'을 연다.

이번 초대전은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전북 전주시 전주현대미술관에서 각각 개최된다.

16년 동안 공직에 몸을 담았던 송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6월 전북도지사 임기를 마무리한 후 서예가로써 새 삶을 시작한다.

송 전 지사는 이전부터 서예가로서의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의 아버지인 강암 송성용 선생은 근현대 한국서예를 대표하는 대가 중 한 명으로, 송 전 지사 역시 강암 선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초대전에서 송 전 지사가 보여주는 서예 작품들은 기존 서예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거침없이 나아감을 특징으로 삼는다.

송 전 지사의 이번 작품은 서예가 추구했



백자 위에 서예 작업 중인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던 예쁘고 정돈된 글씨를 뛰어넘어 거칠고 자유분방한 서체를 통해 서예의 미적 개념의 확장을 시도했다.

그러면서도 작품 속의 한국적인 느낌과 분위기를 추구하면서 중국·일본의 서예와

다른 한국적인 서예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논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예가이자 평론가인 김병기 교수는 "손으로 글씨를 쓰는 행위가 사라지는 현실 속 송 전 지사는 '거침없이 쓰는 서예의 즐거움'이라는 자신의 서예를 들고 나왔다"며 "그가 구사하는 서예는 한국서예가 구현해야 할 시대정신이고 젊은이들에게 전통서예를 알리는 효과적 묘안"이라고 평했다.

송 전 지사는 "서예는 문자를 소재로 한번의 붓질로 추상적인 이미지를 통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행위"라며 "서예의 기본 정신이 중요하면서도 또 우리 한국서예만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위해 많은 노력을 거쳤다"고 말했다.

송 전 지사는 1979년 고려대학교 법과학을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 전북도청에서 공무원으로 시작했다.

이후 제36·37대 전주시장, 제34·35대 전북도지사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22년 6월 말 공직에서 은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을 맡으며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뉴스

"도내 10개 시·군으로 문화가 배달됩니다"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29일까지 '구석구석 문화배달 예술, 골골쑥'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도내 지역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석구석 문화배달 예술, 골골쑥'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오는 29일까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문화취약 지역 10개 시·군에서 이뤄진다.

특히 25일 남원시 이백면 문화센터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농촌지역 이동복지사업'과 연계해 공연과 더불어 가족 공예 체험을 마련했다.

세부 일정은 재단 누리집(www.jbct.or.kr)과 SNS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교육문화팀(063-230-745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무형유산 예능풍류방 '첫 발을 딛다'

국립무형유산원, 남사당놀이·승무·살풀이춤·영산재 이수자 창작 공연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관용)은 2024년 무형유산 예능풍류방(레지던시)의 기획공연 '첫 발을 딛다'를 9월 25일과 10월 2일(전주 무형유산원 소공연장), 10월 24일(서울 한국집 민속극장)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무형유산 예능풍류방(레지던시)은 2020년부터 국립무형유산원이 운영해 오고 있는 입주형 프로그램으로, 전승자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 모여 상호 교류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공연을 창작하는 활동이다.

특히 올해는 무형유산원의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한 예능분야 전승자 중 공모를 거쳐 남사당놀이, 승무, 살풀이춤, 영산재 종목의 전승자 4명을 선정해 창작 공연을 제작, 그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다.

첫 공연은 9월 25일 오후 7시 30분,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에서 개최되는 국가무형유산 살풀이춤 이수자 박영미와 영산재 이수자 여진스님(안지훈)의 「관음푸리: 하늘길에서 풀어내는 정화의 빛과 해원」이다.

이어 10월 2일 오후 7시 30분 개최되는 두 번째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이수자 양근수와 승무 이수자 김미자의 동서서방 잡귀잡신을 물리치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태평나례(太平樂禮)」다.

세 번째 공연은 10월 24일 7시 30분, 서울 한국집 민속극장에서 펼쳐진다.

공연은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현장 참여로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0-147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형유산 예능풍류방(레지던시)을 통해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활발한 전승활동을 돕고, 현대 공연·예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공연 기회를 확대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국악명상' 원데이 수강 참가자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새롭게 선보이는 힐링 프로그램 '국악명상'의 원데이(One Day) 수강 참가자를 24일 오전 9시부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을 통해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10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되며, 하타 요가, 아슈탕가 요가, 심잉볼 테라피, 감정 아로마 명상과 가야금, 해금 연주가 어우러져 심신의 안정을 돕는다.

모집 인원은 화차별 선착순 20명이며, 성인(일반인) 대상이다. 중복 참여가 가능하며, 사전 접수는 각 회차 전날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정원 미달 시 당일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화(063-620-2319)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천년전주한지포럼 20년 여정 돌아본다

한국전통문화재단, 기획전시 '스무 살 한지 이야기' 29일까지 개최

한국전통문화재단(원장 김도영)의 예술인지원사업 세 번째 기획전시 '스무 살 한지 이야기'가 24~29일 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23일 전당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시는 전주한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2004년 10월 창립된 사단법인 천년전주한지포럼이 전주한지의 발전을 위해 힘썼던 20년의 여정을 돌아보는 자리다. 천년전주한지포럼은 △세계를 돌며 한지문화를 알리는 한지문화제 개최 △국내 유일의 종이 전문계간지 '한지와 나' 발간 △벽걸이용 한지달력 제작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왔다.

이번 전시에는 △이부덕 △심홍재 △염재수 △임영주 △박금숙 △김선애 △이미경 △강연숙 △조호의 △성하진 작가의 작품 40여 점과, 천년전주한지포럼의 지난 20년의 기록을 담은 포스터, 책자, 달력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24일 오후 5시에 진행되는 20주년 기념식은 천년전주한지포럼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장은성 기자



김도영 원장은 "오랜 세월 전주한지의 발전을 위해 힘쓴 천년전주한지포럼의 20주년 기념 전시를 전당에서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전주한지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